

美國 대학의 西洋 古典을 통한 教養教育 —St. John's 大學을 중심으로—

李 恩 奉
(德成女大 哲學科)

인류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이 수많은 천재들에 의해 탐구되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古典이다.

St. John's 大學은 이러한 고전을 정식으로 교과과정에 채택하는 문제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토론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이미 고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거기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데에 認識을 같이 하였다.

1. 아름다운 古都 아나폴리스

워싱턴에서 불과 4,5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이쳐린 오래된 도시인 아나폴리스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워싱턴은 미국의 행정과 세계의 외교 중심지로서 말끔하고 깨끗하며 매우 능률적인 현대의 도시이다. 그런데 불과 4,5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小都市가 있다. 그 도시는 지금부터 200년 전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로 정해지기 전에 사실상 미국의 수도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도시의 건물들은 모두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었고 대부분은 르네상스風의 고전미를 듬뿍 풍기고 있었다. 오랜 자동차文化를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인지 미국인들은 집을 짓기 전에 우선

길부터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가나 바둑판처럼 길이나 있게 마련인데 이 아나폴리스는 예외이다. 길의 폭도 좁을 뿐 아니라 제멋대로 꾸불텅 길이었고 대부분 일방 통행이어서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이다. 이것은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짐작된다. 길가의 어디를 가나 잘 다듬어진 잔디와 꽃밭, 예술적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자동차보다도 옛날 식의 마차를 타고 이 거리를 누비고 간다면 참으로 잘 어울릴 것 같다.

2. 세인트 존스大學

都市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나폴리스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의 하나인 세인트 존스大學이 도시 중앙에 자

리잡고 있다. 이 대학은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인 1696년에 King William's School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는데 지금도 교문 앞에 이 이름이 붙어 있다. 세인트 존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1784년부터이다. 이때의 大學憲章 가운데 나타난 교육 목표는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서쪽 매릴랜드 최초의 대학으로 동쪽의 Washington College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大學의 창설자들 중에서 美國獨立宣言에 서명한 사람만도 4명이나 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중 Charles Carroll이나 William Pacca를 기념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학교 건물이 세인트 존스의 유서 깊은 건물이 되어 있다. 1696년에 대학이 설립될 당시에는 聖公會(Anglican Church)의 후원하에 있었지만, 그후 종파를 초월한다는 취지에서 미국 독립 이후 카톨릭과 福音主義, 長老敎 대표가 이사로 들어간 적이 있지만 현재는 아무런 종교적 색채도 없는 대학이 되었다. 다만 Saint John's라는 명칭에서만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을 뿐이다. 이 대학 최초의 학생 가운데는 조지 워싱턴의 손자와 두 조카가 있었다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南北戰爭 기간에는 北軍이 病院 센터로 사용하기도 했고 1884년에는 軍事學校로 잠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自由敎養 프로그램(liberal arts program)을 대학의 이념으로 채택한 것은 1923년이었고, 오늘날과 같은 古典 읽기를 중심으로 한 새 프로그램(new program)을 채택한 것은 1937년부터이다.

이 대학이 얼마나 오래된 대학인지는 교정에 들어서면 느낄 수 있다. 학교의 건물들은 1960년대에 지은 과학 실험실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앞에서 말한 르네상스풍의 고전미가 풍기는 유서 깊은 건물들이다. 교문에 들어서면 맥도웰홀(McDowell Hall)이라는 건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건축가가 매릴랜드까지 일부러 와서 지은 것이다. 당시의 식민 통치자로 매릴랜드를 다스리고 있던 토마스 블래든(Thomas Bladen)이 개인 저택으로 쓰던 곳이다. 1766년에 토마스 제퍼슨도 이 건물에 감탄하여 이 건물을 맡고 있는 언급할 만한 가치

있는 공공 건물이 미국에는 없다고 하였다. 이 건물의 이름을 오늘날 맥도웰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인트 존스의 초대 학장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세련제로 오래된 학교 건물이라고 한다. 캠퍼스내에 있는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 모두 일일이 예거하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모든 건물들은 이처럼 오래된 것으로 이러한 건물들은 기숙사로 쓰기도 하고 도서관이나 토론 장소로 쓰기도 한다.

이 대학은 석사학위까지만 수여하는 전체 학생 수가 5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지만 캠퍼스는 의외로 넓었다. 그리고 캠퍼스 구석구석 어디를 가나 책을 읽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대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깊은 인상이다. 책 읽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항상 책을 끼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 건립 100주년 기념으로 심었다고 하는 거대한 나무 그늘 밑에서도 책을 읽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계단 밑 그늘, 기숙사, 도서관, 식당, 휴게실 어디서나 책을 읽는 학생을 만나게 된다. 이 대학이 바로 서양 고전을 통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미국에서도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킨 대학이다. 그 도시에 그 대학이라고나 할까 참으로 잘 어울리는 대학이었다. 만약에 이 대학에서 최신의 기술이나 첨단 과학을 가르친다면 잘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古都→유서 깊은 고전적 분위기의 대학 캠퍼스→古典을 통한 교양교육으로 연결되는 이 대학이야말로 잘 어울리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내가 글을 쓰기 위해 앉아 있는 도서관, 내가 앉아 있는 의자의 등 뒤에는 "1697년 토마스 브레이크 신부에 의해 기증된 미국 최초의 공공 도서관"라는 글귀가 쓰여 있기도 하다. 도서관 안에는 서양의 고전들로 꽂 차있다. 그러나 옛날 책이 들어차 있는 방에서 흔히 풍기는 중압감이나 낡은 古風은 보이지 않는다. 도서관 건물의 방은 천장이 높은 옛날 식이요 현대의 기능주의적 건물과는 다르지만 24시간 어어쨌이 작동되어 있고 등을 모두 내놓고 맨발로 다니는 듯한 여학생이 그 안에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다. 고전과 현대가 어울리는 분위기였다. 서양의 고전만을 가르치는 대학, 미국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

니 미국의 힘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한국도 수많은 고전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방치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하나 없지 않은가? 세계의 최첨단을 가는 과학과 기술의 나라인 미국에서 고전만을 가르치는 대학이 있다는 것은 바로 미국의 저력을 말해주는 것처럼 여겨진다.

3. 教育課程

1) 古典教育

古典이 무엇이나를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고전은 각 시대를 넘어서서 인류의 정신적 유산으로 평가를 받은 책인 것만은 분명하다. 인류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이 수많은 천재들에 의해 탐구되었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고전이다. 우리는 '고전'이라고 표현하여 옛(古)자를 쓰고 있지만 옛날 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있는 위대한 책(great books)이라는 미국식 표현이 훨씬 정확하다. 현대에도 많이 쓰여져 1년에 수십 만 권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책과 '위대한 책'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 책들에는 인간의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지혜와 서양 정신의 핵심이 들어 있다. 세인트 존스大學은 이러한 고전을 정식으로 교과과정에 채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토론을 가졌다. 이 토론의 역사와 과정이 1983년에 출판된 「自由教養大學의 追求(A Search for the Liberal College)」라는 단행본으로 나와 있다. 이 책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고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름 학교에 참석하고 있는 61세의 어떤 학생과의 대화에서도 그와 같은 선념을 읽을 수 있었다. 쾨닝햄이라고 불리는 할아버지는 26년간 언론인으로 생활하였고 현재는 뉴욕 시립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 경험도 풍부한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두더운 여름에 학생으로 등록하여 고전을 읽기에 여념이 없는지 궁금하였다. 그래서 나는 식사를 같이 하며 무엇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답변하였다. 현대인은 두 가지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일에 대한 노예 상태요, 또 하나는 전문 지식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기자 출신답게 프레스맨은 반드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한다. 신문 기자는 사회 현상을 쫓아다니고 그러한 風聞만을 보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쾨닝햄씨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생겨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았다. 지식이란 배워서 활용하고 돈벌이에도 유용한 것이어야 하고 요즘의 학생들이 대학에 기대하는 것도 그것이 아닌가?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이 반드시 유용성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은 나 자신 너무도 잘 아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 문제에 관해 쾨닝햄씨의 답변이 듣고 싶었다. 쾨닝햄씨는 자기 자식의 예를 들면서 만약 자기의 자식들이 지식이 만들어지는 원천에 관해 배우는 고전교육을 받았더라면 더 성공하기에 용이했을 것이라고 한다. 고전을 읽는다고 하여 과거의 것을 그냥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현대와의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선념은 더욱 확고한 듯하였다. 흑인의 인종 문제에 관하여도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고전으로부터 내릴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다시 질문하였다. 지식이란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 형태가 나오게 마련이다. 이미 모든 지혜가 고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것은 하나의 결정론(determinism)이 아니겠는가? 가령 요즘에 대두하게 된 女性學 같은 새로운 지식 체계를 고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쾨닝햄씨는 만약 여권 운동가들이 고전교육을 받았더라면 좀 덜 공격적(aggressive)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고 말한다. 고전에는 여성에 관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혜가 있는데 그것과 접촉되지 않는 현대의 지식이란 튼튼한 기반에 있기가 어렵다고 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겠다

고 생각되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학생을 가르치는 세인트 존스大學은 참으로 행복한 대학이라고 느꼈다.

여기 여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서 나이가 든 어떤 여교사는 이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게 된 이유로 학생을 가르치는 텍스트 가운데 여러 고전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미국에 이와 같이 단기간내에 석사고전에 관해 교육할 수 있는 센터가 있다는 것에 대해 한없이 부러운 생각이 든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사실상 우리가 학문을 오래하여 학문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사람이 젊어서 박사학위를 하나 받은 것은 기껏해야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것에 불과하고 외궤로 한 면만 조금 들여다 본 것에 불과하다. 학문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전문 지식이 고전적인 지식과 접촉을 이루는 것을 말하지 않는가? 세계적인 학자일수록 자기의 전문 분야의 울타리를 넘어서 타 학문의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해박한 고전 지식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세인트 존스大學에 앉아 있으면 또 하나의 이 대학 자랑거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대학 출신들이 미국의 전역으로 퍼져 각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학에서는 일일이 통계를 들먹여가며 말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 대학 출신이 미국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가장 읽기 힘든 위대한 책을 체계적으로 읽었을 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하여 마음의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웬만한 지식의 체계와 그 밑바탕이 되는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討論을 통한 3단계의 교과과정

이 대학의 교과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 모든 부분은 한국식으로 하는 강의라는 것은 없고 모두 토론을 통해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첫번째 부분은 seminar라는 것이 있고, 두번째 부분은 집중 지도라고 할 수 있는 tutorial이 있고, 세번째로 개별 지도라고 할 수 있는 preceptorial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tutorial system을 개별 지도제라고 번역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개별 지도는 아니고 오히려 preceptorial이 개별 지도에 가까웠다. 그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세미나와 집중 지도제였다. 이 두 개의 학습 방법은 17~20 명의 학생이 원탁으로 둘러앉아서 토론을 하는 형식이었다. 거기에 tutor라고 불리는 교수가 한 명 참석하여 사실상 토론을 이끌고 갔으나 토의 주제를 정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학생 중에서 미리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였다. 옛날에는 교수를 보조하는 co-leader라 불리는 사람이 참석하여 질문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나 자신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 나는 여러 개의 세미나와 집중 지도에 참석해 보았는데, 세미나라는 것은 현재 덕성여자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비교적 많은 분량(약 50 페이지 내외)의 책을 읽고 그 책 전체를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예컨대 신약 성서에서 「바울로의 로마인에게 보내는 서간」을 읽고 그 서간의 전체적인 내용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서간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느냐 하는 것은 처음 문제 제기를 한 학생의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체적인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두번째의 집중 지도제라는 것은 가령 한 책이 7장으로 되어 있으면 첫 시간에는 1장만 읽고 토론하고, 둘째 날에는 제 2장만 하는 식으로 책을 차례대로 읽고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가는 것이었다. 나 자신은 데카르트의 제 3 명상(third meditation)부터 차례로 제 4, 제 5로 순서대로 이어서 참석하였다. 다 같이 토론을 통해 하는 것이었으므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세미나와 집중 지도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의 성격에 따라 집중 지도제는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있는 토론 학습이었다. 세번째의 preceptorial system은 한 명의 교수가 5명 이하의 학생을 개별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에세이를 쓰도록 지도하는 것이었

다. 한국에서 하는 논문 지도와 유사한 것이다. 다만 세인트 존스에서는 논문이라 하지 않고 에세이라고 하는데 형식상으로 보면 우리의 논문처럼 참고 문헌도 달고 있으므로 사실상 논문과 유사하였다. 3, 4학년 학생 가운데서 그 학년이 끝나는 약 9주간을 preceptorial 기간(학습 기간)으로 보낸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고전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든가 여러 고전 속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주제를 선택하든가 한다. 이렇게 하여 쓰여진 에세이를 발표하고 다른 학생이나 교수의 비판적인 평가를 듣는다. 나는 이 에세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몇 편 읽어 보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잘 된 에세이는 도서관 열람실에 비치하여 놓고 누구나 읽을 수 있었다. 에세이 수준은 대단히 높았고 문장도 매우 아름다운 것이었다. 고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대학의 학습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었다. 나도 대학에서 토론을 통한 학습을 10년 이상 해보았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의 대학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토론 과정을 살펴 보게 되었다. 한국의 학생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첫째, 토론에 참석한 학생들이 너무도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기 때문에 tutor가 특별히 토론을 이끌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았다. 미국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대화와 토론이 몸에 밴 듯 자연스럽다. 그들은 토론을 즐기는 듯했다. 텔레비전 프로에 이른바 Talk Show라는 것도 있지 않은가? 토론은 참으로 서양 문화의 기본이고 큰 흐름인 것 같다. 서양의 고전을 토론을 통해 배우는 것은 그들의 전통에서 볼 때 딱 들어맞는 교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진리 추구의 방법이다. 소크라테스와 거의 동시대에 공자도 제자들과의 문답을 남겼지만 제자들이 물으면 공자가 대답해 주는 형식이어서 엄밀한 의미의 대화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동·서양 문화의 차이점이다.

미국의 학생들이 적극적인데 비하여 한국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발언에 그리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적인 담화를 즐기는

것은 한국의 학생들도 많이 하지만 공적인 담화나 학술적인 토론에 있어서는 좀 덜 훈련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둘째, 미국 학생들의 의견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백출하게 마련이나 한국 학생들의 의견은 대체로 획일화되어 있고, 그래서 토론의 주제에 대해 정답을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의 개성 있는 독자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미국은 여러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서양 고전은 역시 그들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면 그들의 토론 수준이 한국 학생의 것보다 좀 높았다는 것은 역시 인정할 수 있을 것 이란 점이다. 대학 4학년 학생의 시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motion)'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였는데 토론 주제도 희랍어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세인트 존스에서는 희랍어·라틴어·불어를 필수로 한다) 중요한 용어는 희랍어 원어를 사용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시 그들에게도 어려웠던 듯 아주 썰썰매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역시 지적인 분위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한국인이 서양의 철학을 이해하는 일이 과연 얼마만큼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도서관에 진열된 에세이들은 한국에 가져오면 훌륭한 논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광범위하게 읽은 독서량도 그렇거니와 보는 깊이 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는 것이어서 누가 그것을 대학원 수준의 작품이라 하겠는가?

반대로 뒤집어서 서양 사람이 한국의 고전을 이해하는 일이 과연 얼마만큼 가능한 일일까? 내가 알고 있었던 한 불란서 신부는 15년 이상 한국에서 살며 공부한 사람인데, 그가 쓴 춘향전과 한국의 민속 종교에 관한 글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무언가 미흡하고 선에 닿지 않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서양 고전에 관해 쓰는 글도 기껏해야 그런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일본인이 중국 철학으로 중국인을 능가하는 사람은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인이 서양 철학으로 서양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

을 것이라고 본다. 서양 고전은 역시 그들의 전통적인 것이다. 나는 미국의 학생들이 단테의 「神曲」과 초서의 작품, 호머의 「일리아드 오딧세이」를 읽는 것을 보고 그 점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4. 금요일 밤의 講演

세인트 존스大學의 오랜 전통 중의 하나는 금요일 밤(8시 30분 시작)에 벌어지는 공개 강연이다. 외부에서 고전에 관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대학의 교수가 발표한다. 대개 강연 장소는 도서관 건물 3층, 사면 벽에 책이 뿔뿔이 꽂혀 있는 중앙에서 그 대학 교수들, 대학 4년생, 대학원 학생과 섬머스쿨에서 석사과정을 밟기 위해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로 모든 좌석이 꽂 찬다. 이 날은 외부에서도 이 강연을 들으러 오기도 한다. 말이 강연이지만 보통 강연 내용은 복사가 되어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구 발표와 같은 것이었다. 이미 발표된 강연 내용 가운데 좋은 것이 많아서 나도 20여 편을 사가지고 왔다. 내가 참석했던 것은 두번이었는데, 한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詩學」에 대한 강연이었고 또 한번은 톨레미의 「알마제스트」라는 古代 天文學에 관한 것이었다. 강연은 대개 1시간 정도 지속되었는데 그것이 끝나자 질문이 시작되었다. 첫번째 몇 개의 질문은 거기 참석한 다른 교수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연 장소까지 가지고 들어온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를 펼쳐 보며 질문을 던졌다. 세인트 존스大學의 대표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다. 그후 많은 사람으로부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며 답변하는 가운데 밤 10시가 넘었다. 그러자 사회자는 밖에 커피가 준비되었으니 마셔도 좋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빠져 나갔다. 뒷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앞의 빈 자리를 메꾸며 다가와 질문은 또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자유히 나가기도 했지만 단 몇 명이 남아서 질문을 하더라도 끝까지 답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밤 12시쯤 되어서야 토론이 끝났다. 나는 이 강연과 토론을 들으면서 이 대학에서 고전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고전은 결코 옛날 책이거나 낡은 책이 아니었다.

나는 이 강연회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한 젊은 남학생에게 계속 눈길이 갔다. 그는 바로 내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장발이었고 너털너털하게 떨어진 남방 셔츠를 입고 있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등의 살이 보였고 너털거리는 형겅 사이를 대충 실로 이어놓고 있었다. 슬립퍼를 신고 있었으나 발에는 메가 끼어 있었고 더러운 병거지를 하나 쓰고 있었으나 다행히 강연장에서는 벗어서 의자 뒤에 걸어놓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오랫동안 씻지 않은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영락 없는 허피 바로 그것이었다. 그 사람이 자리 잡기 전에 내가 앉은 자리는 비교적 정면 앞 자리여서 내심 명당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앉음에 따라 나는 재수없게 걸렸다고 마음 속으로 체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으로 “저 사람이 끝까지 듣고 앉아 있을라구, 곧 지루해지면 나가주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곁에 나타난 저 행색으로 보아 도무지 고전을 읽고 앉았을 위인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나의 생각은 착각이었다. 밤 11시가 지나면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며 물고 늘어지는데 너무도 날카로워서 오늘 강연을 한 교수가 긴장 되어 답변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다. 그는 거지같은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론을 내렸다. 이 대학에 입학하여 다니는 사람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는 세인트 존스大學에 머물고 있는 동안 줄곧 어떻게 하여 학생들이 책을 열심히 읽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관찰하였다. 이 대학에 들어서면 교정 어디서나 책 읽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이다. 기숙사에서도 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책을 읽는다. 나는 책을 읽지 않고도 뻔뻔스럽게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하는 한국의 일부 학생들과 비교하였다. 강제라도 책을 읽게 하려고 세미나 시간 전에 퀴즈 시험을 간단하게 치는 수법을 사용해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책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일부의 학생들 때문에 골치를 앓아서 세인트

트 존스大學에서는 그 점에 대하여 무슨 뽀족한 수가 있는가를 알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 보아도 강제로 읽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발적으로 읽는다.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미국의 학생들은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일까? 세인트 존스大學에서는 책을 읽지 않거나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추방해 버린다. 다른 대학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전례는 드물긴 하지만 없지는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교의 규칙이 엄하기 때문에 누구나 책을 잘 읽어오는 것일까? 나는 그것도 이유가 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규칙을 잘 지키는 미국인들의 경향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광범위한 實驗室의 運營

세인트 존스大學의 배지를 보면 동그란 원 안에 7권의 책을 펼쳐 놓고 그 한가운데에 균형을 이룬 저울을 놓은 형태로 되어 있다. 이른바 자유 7學(문법, 수사학, 논리학,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을 상징하여 책을 펼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모든 분야의 균형 있는 학습이 이 대학의 목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자유 7學 가운데서 반드시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전 작가들이 많이 있다. 세인트 존스大學에는 이런 작가들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규모에 있어서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최신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매주 2번 모이는데, 대개 학생 7~21명과 교수 한 사람, 조교 몇 명이 한 팀이 되어 실험을 해본다. 여기의 실험은 고전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는 것이어서 자연히 원리적인 것들을 도출해 내는 방법을 배운다. 나는 특히 고대 천문학에 관한 정확한 실험과 그림·방법을 재현해 놓은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현대 과학의 지식은 이미 고전에서 밝힌 것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란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금요일 밤의 강연에서 「알마제스트」를 발표할 때도 환등기를 이용해 복잡한 이론 체계를 설명해 주었는데 고대 천문학에

서 이미 원리적인 것이 모두 나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현대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은 학년별로 보면, 1학년 때 1주간 천체 현상에 관한 실험을 한다. 하루 동안의 현상과 1년간의 천체 현상을 살펴 원리적인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것은 톨레미(Ptolemy)의 「구조(Syntaxis)」라는 책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1학년 11주 동안 광대한 우주에서 떠나 생명에 대한 실험을 한다. 생물의 분류와 유형, 분석적 구조, 세포, 그 결합과 분열 등을 관찰하는데, 이것을 위한 텍스트는 Aristotle, Galen, Harvey, Lamarck, Schwann, Virchow, Roux, Driesch 등의 것으로 한다. 그리고 같은 학년에서 20주 동안은 非生命的인 것, 즉 질료에 관한 화학적 분석에 관한 것을 실험한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라브아제(Lavoisier)의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들의 한계점이나 현대의 이론을 비교하기도 한다.

2학년 때에는 음악에 관한 tutorial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실험에 부과된 것은 없다. 세인트 존스에서는 음악의 테크닉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 음악 현상 일반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연구한다. 음악도 여러 단계로 정밀하게 공부하는데 1학년 때 주로 합창을 많이 하다가 2학년 때 언어와 수사학, 詩에 관련된 음악적 요소, 음표와 단어에 있어서 음악적 요소, 화음의 이론을 배우고 바하의 인벤션, 슈베르트의 가곡, 팔레스트리나의 미사곡, 모짜르트의 오페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3학년에 올라가면 Galileo, Descartes, H uygens, Newton, Leibniz, Carnot, Clausius, Faraday, Maxwell의 텍스트를 실제로 읽으며 그 이론적 배경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주로 물리학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운동, 光學, 열역학, 전기 등이 실험의 대상이 된다. 4학년 때는 1학년 때 제기되었던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심화시키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Schrödinger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fe?)」, 멘델의 유전학, 모어건과 그 후계자들의 해석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 현대의 과학자인 Watson이나 Crick, Jacob,

Monod 등의 이론을 비교한다.

동양의 고전이라 하면 주로 윤리적인 것과 문학적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서양의 고전은 과학적인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험을 통하지 않고 서양의 고전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데카르트만 하더라도 순수한 철학책보다도 오히려 과학에 해당되는 책을 더 많이 쓴 사람이다. 한국에서는 데카르트의 과학은 무시하거나 읽지 않고 철학만을 논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참석했던 데카르트의 tutorial 에서 「방법서설」이란 철학 책 제3장 〈瞑想〉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자연과학자로서의 데카르트가 운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양 고전에도 과학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서양 고전만큼 방대한 실험실을 가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것이 바로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이다.

6. 入學・試驗・卒業

끝으로 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과 평가, 졸업에 대하여 간단히 말해 보겠다. 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 시험이나 그밖의 까다로운 규정은 없으나 처음 들어갈 때 에세이를 써내야 한다. 말하자면 이것이 입학 시험에 해당한다. 에세이를 써 내야 하는 것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이 대학의 특징이다. 매학기말 혹은 1년에 한번은 꼭 제출해야 한다. 재학 시절의 성적 평가는 점수로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이 미국의 다른 대학으로 옮길 때를 대비하여 성적을 평가하고 학교에서 보관한다. 학교에서의 시험은 주로 구두 시험으로 치르게 되는데

학생이 읽은 책의 어느 부분을 물어보거나 혹은 그 책에 대한 비판력을 물어 보게 된다. 학생이 그 고전의 내용을 얼마나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가를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한 안목과 이해력, 다른 작품과의 관련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려고 한다. 보통 신입생은 겨울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치르게 되지만 3,4학년 학생은 preceptorial 이 시작되기 전에 구두 시험을 보아야 한다.

또 이 대학의 학생들은 문학사 학위를 받기 전에 반드시 불탄서어 독해력을 시험하는 데 통과해야 한다. 보통 4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보아야 하는데 졸업의 필수 요건이므로 세인트 존스대학 출신은 누구나 불어를 잘 할 수 있다.

특히 4학년 마지막 가을 학기에 보는 구두 시험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시험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양적으로 12개의 세미나에서 읽었던 분량의 책을 구두 시험의 범위로 삼고 있다. 이때의 책은 대학교육위원회(Instruction Committee)에서 선정한 것으로 4년 동안 다루었던 중요한 테마들이 다시 한번 다루어지는 것이다. 구두 시험으로서는 사실상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에세이를 제출하여 통과하면 문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졸업 에세이는 어떤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연구 논문이 아니고 자유교양(liberal arts)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 졸업 에세이는 교수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여러 교수들 앞에서 자기가 쓴 에세이에 관한 구두 시험을 보아서 통과되어야 한다. 만약 여기서 만족스러운 시험을 보지 못하면 학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대학을 졸업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판문인 것이다.*